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7

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7 / 9



清香 (36x36-Acrylic on Canvas)

불일암에 가면 당신이 손수 똑딱거리며 만들어 놓은, 일명 '빠빠용' 의자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늘 그 의자에 앉아 달빛을 사랑하셨습니다. 스님은 가셨지만 불일암만 생각하면 까닭모를 이슬에 잠겨곤 합니다. 저에게 있어 불일암 추억은 이승을 떠날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무친 그리움입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익히는 대로 풀린다
처음마음으로	12	진정한 천도란 무엇인가
꽃은 흠에서 핀다	16	노인정 가지 말고 교회 가시오
경전에서 배우는 지혜	21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지옥에 가겠다
아름다운 마무리	26	9월 결연 대상자 - 김석훈(가명)
따뜻한 이야기	28	세탁소의 사과문
모단 에세이	30	벽
공감으로 소통하십시오	32	고정된 것이 있을까요?
古典을 읽다	36	화가 반 고흐의 서간문집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0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71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익히는 대로 풀린다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글 • 법 정(法 頂)

칠악야차七岳夜叉가 말했다.

“오늘은 보름, 포살布薩 날이다

눈부신 밤이 가까워졌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뛰어난 스승

고타마를 뵈러 가자.”

\* 야차는 산스크리트어 약사를 음역한 말인데,  
본래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했다. 그러나 후기  
에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포악한 귀신의 한 종  
류로 생각되었다.

\* 포살은 산스크리트어 우포사타(uposatha)  
에서 온 말, 출가 수행자들은 보름과 그믐 한  
달에 두 차례씩 불전佛殿에 모여 계율을 읽고  
지는 허물이 있으면 참회한다. 그런 의식을 포  
살이라 한다.

설산雪山야차가 말했다.

“그의 마음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을까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생각을 자제할 수 있을까?”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편히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은 생각을 잘 자제할 수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을까

그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  
제하고 있을까

그는 게으름에서 떠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명상을 그만두지 않고 있는  
가?”

칠악야차가 대답했다.

“그분은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는다

그분은 산 것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제하  
고 있다

그분은 게으름에서 떠나 있다

눈을 뜬 사람은

명상(禪定)을 그만두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거친 욕설을 하지 않을까

이간질을 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친 욕설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분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욕망의 향락에 빠지는 일은 없을까

그의 마음은 혼탁하지는 않는가

해매임(迷妄)을 초월했을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을까?”

칠악야차는 대답했다.

“그분은 욕망의 향락에 빠지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혼탁하지 않다

모든 해매임을 초월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설산야차가 말했다.

“그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있을까

그의 행동은 청정할까

그는 온갖 번뇌의 때를 없애버렸을까

그는 이제 또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까?”

철악아차가 대답했다.  
“그분은 밝은 지혜를 갖추었다  
그분의 행동은 청정하다  
그분은 온갖 번뇌의 때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다.”

설산아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찬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그를  
그대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악아차가 말했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밝은 지혜와 청정한 행을 갖추고 있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설산아차가 말했다.  
“그 성인의 정강이는 영양(羚羊)과 같다  
여위고 가늘며 총명하고  
소식(小食)으로 탐내지 않고  
숲 속에서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자, 우리는  
고타마를 뵈러 가자.

온갖 욕망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홀로 가는 그에게 가서  
우리는 물어보자  
죽음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길을.”

두 아차가 함께 말했다.

“열어 보이는 분  
풀어서 밝히는 분  
모든 사물의 궁극에 통달하고  
원망과 공포를 초월해 눈을 뜬  
고타마께 우리는 물어보자.”

설산아차가 (세존께) 물었다.  
“세상은 어째서 생성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착해 있으며  
또 무엇 때문에 해를 입고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설산에 사는 자여  
여섯 가지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생성  
되고  
여섯 가지 것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은 여섯 가지 것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 그 여섯 가지 것에 해를 입고 있느니라.”

\* 여섯 가지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意志)  
을 가리킴. 이를 육근(六根) 또는 육입(六入)이라  
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해를 입는다는  
그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  
습니까?”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고  
의지(意志)의 대상이 여섯 번째라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은 형상, 소리, 향기,  
맛, 감촉 등 오관의 대상.

이와 같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대들에게 사실대로 밝혔다  
이 일을 나는 그대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센 흐름을 건널 수 있겠습  
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 윤회의 생존을 거센 흐름과 바다에 비유한 것.

“항상 계책을 몸에 지니고  
지혜가 있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고  
염원念願이 있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거센 흐름을 능히 건널 수  
있다.

관능의 욕망에서 떠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쾌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다.”

설산아차는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다.

“지혜가 깊고  
심오한 뜻에 통달하며  
아무것도 갖지 않고  
관능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해탈해 천상의 길을 가는  
저 위대한 선인仙人을 보라.

명성이 높고 심오한 뜻에 통달하며  
지혜를 가르쳐주고

욕망의 집착에서 떠나  
모든 것을 알고 현명하며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저 위대한 선인을 보라.  
오늘 우리는 눈부신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새벽을 만나  
상쾌한 기분으로 새날을 맞이했다  
거센 흐름을 건너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깨달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기 1천이나 되는 아차의 무리들은  
신통력이 있고 명성도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당신께 귀의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더없는 스승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니겠습니다  
깨달은 분과 진리의 뛰어난 특성에 예배  
드리면서.”

- 강론 -

###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유일한 존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 처서를 지나더니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득거리고 풀벌레며 귀뚜라미가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 여름에 내렸던 발을 거두고 하루 이틀 걸러 군불도 지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계절이 바뀔에 따라 우리들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 여름날의 무더위와 물 것 때문에 등불을 멀리했는데, 이제 밤이 길어지고 안으로 투명해지고 싶은 계절 앞에서 다시 등불을 가까이할 수 있다. 어느 새 하늘도 높아지고 별자리도 한층 또렷해졌다.

설산아차가 지닌 깨달은 분에 대한 의문은 탐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물음이다. 투철한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그런 회

의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진과 체험 없이 남의 말에만 팔리다 보면, 설산아차와 같은 그런 회의를 문득문득 고개를 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밖으로 향하려는 관심과 시각을 안으로 돌이켜 설산아차의 물음을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 거듭 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경전을 독성하는 것은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탐구하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대할 지라도 소득이 없을 것이다.

내 마음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과연 자비심을 지니고 있는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결 같이 내 생각을 자제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말도 없이 가진 일은 없는가? 지난 여름 모기

나 파리 등 살아 있는 것을 해치지 않으려고 자제해보았던가? 그리고 계엄령을 피운 적은 없었던가? 경전위기를 시작한 이래 혹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는가? 욕설은?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해 친구 사이를 이간시킨 일은 없었는가? 쓰잘데 없는 말로 남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적은 없었는가?

이와 같은 자기 반성을 통해 삶이 개선되어야 새로운 삶을 가꿀 수 있다. 그래서 경전은 내 자신의 현 존재를 환히 비추어볼 수 있는 거울이다.

“성인의 마음은 행동과 말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 인격자나 위선자라고 한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인격이 분열되었다고 한다.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말 없는 행동을 훨씬 높이 평가한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오직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 짐승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며 복지 사회 실현과 청렴결백한 공직자를 내세운 바로 그 정권의 당사자가, 국민의 눈과 귀를 겹겹으로 막아 놓고 자기네 집안끼리 일찍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온갖 부정과 비리를 자행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시대의 구겨진 현실을 통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탐욕과 어리석음의 근원을 냉철히 추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다섯 가지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형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들어오는 향기, 혀에 닿는 맛,

살갓에 닿는 감촉 등이 바로 우리들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는 일들에 집착하면 그것이 욕망의 대상으로 돌변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어디 그리 쉬운 노릇인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정한 생활 규범(戒)을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안으로 살피라는 것이다. 그리고 염원을 지니라고 한다.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三學)을 익히고 큰 원을 세운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흐름을 건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관능적인 욕망이 없어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생사윤회의 바다에도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은 순간순간 익히는 대로 풀려간다. 이 순간의 의지적인 선택 여하에 따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 가을의 사람은 지난 여름 그 사람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 결식아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진정한 천도란 무엇인가!

클·덕 일(德日)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한 달을 건너니 무척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듯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법회에 동참하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빗속을 뚫고 부처님의 성전 앞에 오셔서 동참하신 것을 직접 뵈오니,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 신도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신심이 돈독하신 참불자들이십니다.

이번달도 역시 백중이며 윤달의 기간입니다. 윤달에는 집짓기나 집수리, 이사, 조상 묘 이장 등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달

에는 부정이나 액이 없다고 믿어 무분별하게 조상님들의 묘를 이장한 후 별다른 원상복구 없이 파헤친 듯한 흔적을 남기고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연 진정한 조상천도란 무엇일까요? 조상님들의 묘를 윤달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파서 이장하는 것도 후손들의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윤달에는 고요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법공양을 올리며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

니다. 다시 말씀드리다면 윤달에 명당을 찾아 묘를 이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의 삶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나에게 고귀한 삶을 주신 분들은 윗대 조상님들과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즐긴다면 조상은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줄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조상의 은혜를 생각함은 생명의 근원, 즉 우리의 뿌리를 생각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됨은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와 부모님의 고귀하신 은혜입니다. 강물에도 그 근원 물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조상은 후손을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죄를 많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상님들과 부모님은 자신들의 앞날을 기약하거나 돌보

지 않고, 때로는 악행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아난 등의 제자를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향하시는 도중에 문득 백골 무더기를 보시자 몸소 땅에 엎드리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하게 여기자, “너희들은 이 뼈들을 어찌 백골로만 보느냐. 이 백골은 혹시 나의 윗대 조상일지도 모르고 또한 그 윗대 부모님이실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철저한 보

은(報恩)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고, 모든 조상님들께 보은하는 정신으로 올바른 감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가르침을 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 백중 조상천도재에 임하여 영가 천도의 기본자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불교의 핵심을 담은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영가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도에 임하는 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할 수도, 또는 지옥의 삶을 살도록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천도에 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엄한 의식절차 속에서 영험 있는 경전을 읽으며 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도

에 임하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기본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효심으로 정성을 다하라.
2. 직접 천도하는 자세를 지녀라.
3. 장애를 극복하며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①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염불천도법 [念佛薦度], ② 공덕이 큰 경전을 읽어주는 독경천도법 [讀經薦度], ③ 경전을 정성껏 쓰면서 행하는 사경천도법 [寫經薦度], ④ 광명진언, 흠부다라니, 천수대비주 등을 외우는 주력천도법 [呪力薦度] 등이 현재 가장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천도법입니다. 물론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근본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과 덕과 지혜가 모자라는 불자들에게 있어 영가들을 좋은 세

상, 극락정도로 인도하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 될 수도 있으며, 천도를 효성이 깃든 마음으로 임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행한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금번 저희 길상사에서는 백중기도, 승보공양으로 가사불사 동참을 권선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집안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또한 자식이 총명하고 무병하여 장수하기를 바람에 있어서 수행하는 스님들께 법의(法衣)를 지어서 공양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사불사는 부처님께 올리는 개금불사와도 같으며 동참한 공덕으로는 병고자를 속독쾌차하게 하고, 단명자는 수명장수하게 하며, 무지한 자는 지혜가 생겨나게 합니다. 우란분절 백중 회향을 맞이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십시일

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님께서도 가사를 수하시고 지옥문 앞에서 육환장을 올리시며 지옥고를 받는 중생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힘써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선망조상, 부모, 형제, 일체유무주 영가들의 진정한 천도를 위하여 영가가 복위(伏爲)가 되고 혹은 기부(記付)가 되어 은혜 입은 모든 영가들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발원 올리십시오.

아직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행하시고 건강 유의하시옵길 축원 올리옵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61년 음력 6월 초하루 법문

(2017년 7월 23일)

## 노인정 가지 말고 교회 가시오

글 • 김기철(도예가)

두 팔 성한 사람이면 거리가 부리고 다니는 것 같은 차 한 대를 몰지 못해 당하고 본 일이니 어디 하소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다. 별로 나돌아 다니는 성미가 아니면서도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전철 신세를 지고 사는 세상, 그것 또한 사는 재미를 톡톡히 느끼게 할 때도 있으니 세상에 공것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세상에 공것이라는 것이 없다. 한 가지 좋으면 한 가지 나쁘고, 무엇이고 누린 만큼 값을 치러야 되게끔 돌아가고 있으니 누구한테 기분 언짢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펄펄 떨게 아니라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아량이 아쉽기만한 것이다.

어제는 몇 년, 몇 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게, 아니 평생 오직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진 날이었다. 일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일들만 일렬로 줄을 서서 기다리듯 차례차례 찾아드는데, 반 무당이라도 된 것 같았다. 정말 희한한 날도 다 있다고, 입이 벌어져 오후에는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흥혜경이라는 소프라노 노래를 듣기 위해 하던 일 팽개쳐 놓고 혈레벌떡 서울 한복판으로 비집고 기어 올라갔다. 과연 그 명성에 걸맞게 그녀는 허당탕한 야외무대에서 수만 청중을 압도하는, 아니 압도한 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모두를

천상으로 끌어 올리는 것 같은 위력을 발휘했다. 아무튼 나는 꿈속 같은 희열 속에 빠져들었고 그 여운은 다음 날까지도 가슴 가득 차 올라서 세상 사는 맛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고 뇌까려 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골로 돌아오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강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어주는 전철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나는 너무나 푸근한 마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꿈과 현실 사이를 한가히 오락가락 해가며 관광 여행이나 떠나는 것처럼 즐기고 있었다. 오전 열 시 전후의 차안은 더 없이 여유롭고 평화스러웠다.

그런데 순간 어디선지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그쪽으로 목을 잡아빼니 아니나 다를까 우렁찬 목소리가 찌렁찌렁 가까워 오고 있

었다. 뜨겁기로 말하자면 목구멍을 델 것 같은 열띤 외침인데 지금 내 머리를 때리는 낱말들은 지옥, 천국, 예수, 하나님, 악마, 청와대, 감옥, 죄인, 영원, 형벌 같은 것들이었다.

드디어 그 열변의 장본인이 내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아래 윗도리가 하얀 양복에 흰 중절모로 세트를 이루었다. 얼굴은 오십대 중반쯤 돼 보이는 혈색 좋은 번듯한 이목구비를 하고 있는데 쏟아져 나오는 낱말에 따라 험악하게도, 온화하게도 표변했다. 그러나 눈은 열기에 차 있고 창백한 형광 불빛 아래서도 뜨겁게 번쩍거렸다. 더구나 양 가슴 앞자락에는 빨간 천을 오려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크게 가슴을 상하로 이등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글자가 ‘주홍 글씨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그의 차림새나 목청이나 거동이 솔직히

협오스러워 속으로 욕을 퍼붓고 있었다. '그따위로 하고 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꼴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디있냐? 믿으려던 사람도 도망쳐 버리겠다' 하면서 냉소하는 것이 어느새 내 버릇이 돼버렸던 것이다. 그는 나에게 다짜고짜 한마디를 던졌다.

“영감 노인정 가지 말고 교회를 가시오!”

아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기에 허구한 사람 다 놔두고 내 앞에 다가서서는, 그것도 주먹 쥔 한 팔을 불쑥 내밀고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는 식으로 희번드르한 눈으로 내려본단 말인가. 나는 멀쩡히 앉았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멍한 눈길로 이미 지나쳐버린 그 위세등등한 등판을 바라다보았다. ‘할렐루야!’ 역시 엄청나게 큰 주홍색 문자가 뭘 쳐다봐 이놈아, 하는 것처럼 내 눈을 가득 밀고 들어왔다. 별 거지 같은

놈 다 보겠네. 아무리 병든 늙은 노새처럼 앉아 있어도 무슨 만만한 싹을 봤기에 다짜고짜로 호령을 해냈는지 입맛이 싹 달아났다.

이렇게 머리는 허영고 비쩍 말랐어도 아직 노인정이라는 데를 달나라만큼이나 먼먼,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잡꼬대 같은 소리인가? 이래봐도 이 마음만은 잊지못 음악회에서 혈기 왕성한 소년처럼 흥분해서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두들겨댔고 얼마나 열광적인 환호와 함성을 질러댔는지 목이 칼칼했는데……. 그 뿐인가 하룻밤이 지난 지금까지도 들뜬 기분에 사로잡혀 마냥 즐겁기만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구멍난 일을 벌충해야겠다고 바빠 움직이고 있는 판에……. 콩도 심어야 하고 감자밭도 매야지, 연적도 몇 개 더 만들어야 하겠다고 잔뜩 베풀며 달려가고 있는 사실을 모

르고…….

하긴 세끼 밥이나 때려죽이고 빈둥거리는 쓸모없는 늙은이로 보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보다도 그동안 지은 죄도 많고 주제 파악 못하고 큰소리치며 웃기게 노는 내 실상을 꿰뚫어 보고 너 같은 인간은 교회 가서 훌륭한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을 쏟든지 가슴을 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려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한 죄인인데 기도 는커녕 교회 문턱에도 가지 않고 맨날 두더지처럼 휴만 가지고 똥구니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하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노인정이라는 데가 다 산 송장잠들이 입을 살아 하나님, 예수님 옥해대며 허송세월하는 천하에 못 갈 마귀소굴 같은 데란 말인가? 아니면 대낮부터 코나 드르렁거리며 쓰러져 있다가 음담패설이나 주고 받으며 귀퀴한 늙은이 뉘새나 풍기는 곳이란 말

인가? 차라리 온갖 귀신이 득시글 거릴 것 같은 무당집이나 바위나 나무를 찾아가서 엎드려 빌지 말라 했다면 모를까…….

나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전도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휘방을 놓느라 그러는지 판단이 안 되었다. 자기는 하늘에서 푹 떨어진 사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대포를 쏘대듯 험박조로 목에 힘줄을 세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뇌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한번은 좀 늦은 저녁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 여자가 아무개 목사님 부흥회 전단을 죽 돌려나가고 있었다. 내 옆에는 암전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지나간 후 말을 걸어왔다. 여인은 내 앞자락에 떨어진 전단을 집어 들고 “이거 다 사이비에

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면서 친근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교회를 나가시나요? 교회도 잘 선택해서 나가셔야 하는데 이름 있는 큰 교회가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이제는 숙제 안 해온 학생 다그치듯 강한 어조가 되어 나의 대꾸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교회 나가세요! 구원 받으셔야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덴 줄 아시고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천국 문 찾아들어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불편한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려고 보면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치기에 특하면 그런 일을 당하나 싶어 은근히 부아가 나지만 문제는

나에게도 있는 것 같아 쓴 웃음을 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는 팔십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신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전에는 전도사로 전방 근처의 어느 폐허가 된 교회를 맡아 일을 보셨다는데 당신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말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모 심을 때면 팔을 걷어붙이고 모 심어 주고, 동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집안 일처럼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1년도 되기 전에 가득 넘쳐났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소리 나는 꿩과 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헌신적인 행동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 준 것이었다. 오늘도 그 분은 말없이 지저분한 골목길을 쓸고 계신다.

## 한 중생을 위해서라도 지옥에 가겠다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의 제타 숲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동안, 즉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왕과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을 받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존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처음 보리심을 발해 부처를 이루었을까?’

이때 존자(학문과 덕행이 높은 부처의 제자) 아난다는 이와 같은 의문을 지니고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세존께서 예전에 어떤 인연으로 큰 보리심을 발하게 되었는가를 궁금히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그것을 말

씀하시어 중생들을 두루 이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니 자세히 듣고 명심해라. 아득한 옛날이 세상에 대광명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복과 덕을 닦았고, 총명하고 용맹스러웠다.

또한 그는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냈으므로 이웃 나라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그들에게 물건을 보내 주었고, 그 나라에서도 진귀한 것이 있으면 왕에게 보내왔다. 어느 날 이웃 나라 왕은 깊은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코끼리 새끼 두 마리를 사로잡았다. 그 코끼리는 몸매가 단아하고 아름답았으며, 흰빛이 마치 백옥과 같았다.

이웃 나라 왕은 그중 한 마리를 금은으로 호화롭게 장식해 광명 왕에게 선물했다. 광명왕은 어린 코끼리를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때 코끼리를 잘 다루는 상사象師가 있었는데, 왕은 그에게 코끼리를 주면서 잘 보살펴 길들이라고 했다.

상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오래지 않아 코끼리를 잘 길들이었다.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제가 길들이 코끼리는 이제 훈련이 잘 됐습니다. 왕께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왕은 아주 기뻐하며 코끼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그 코끼리 등에 날새를 올려탤다.

왕은 즐거운 마음으로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마침내 시험할 장소에 이르렀다. 이때 기운이 왕성한 그 코끼리는 여러 코끼리들이 연못에서 정

답게 연뿌리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곧 욕정이 발동해, 암코끼리의 뒤를 따라가 마침내는 깊은 숲 속으로 치달았다. 이 바람에 왕이 썼던 관은 땅에 떨어지고 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갈기갈기 찢겼으며, 몸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

왕은 치달는 코끼리 등에 앉아 두려워 떨면서, 뒤따라오는 상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겠느냐?’

왕의 뒤를 쫓아오던 상사는 급히 아뢰었다.

‘나뭇가지를 붙잡으십시오. 튼튼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왕은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코끼리는 달아나고 왕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땅으로 떨어졌다.

상사만이 홀로 뒤따라와 지쳐

서 헐떡이는 왕을 보고 송구스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그 코끼리는 이제 욕정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거친 풀은 먹기 싫고 흐린 물은 맛이 없을 테니, 궁중의 깨끗하고 기름진 맛난 음식을 생각하고 제 발로 걸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왕은 상사를 흘겨보며 호령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너나 코끼리를 대하지 않겠노라. 그 코끼리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뻔했도다.’

이때 신하들은 그 미친 코끼리 때문에 왕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숲길을 따라 사방으로 찾아 나섰다. 한 곳에서 왕이 썼던 왕관을 발견하고 부근에 흘린 핏자국도 보았다. 그러다가 왕이 다른 코끼리를 타고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성안의 백성들도 왕이 그런 고

통을 받는 것을 보고 모두들 걱정했다.

암코끼리를 쫓아 달아났던 그 코끼리는 늪에서 거친 풀과 흐리고 더러운 물을 마시자 음심이 저절로 가라앉았다. 며칠 후, 왕궁의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다시 궁중으로 돌아왔다.

상사는 왕에게 가서 알렸다. ‘코끼리가 방금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제는 너도 코끼리도 모두 필요 없다.’

상사는 다시 아뢰었다. ‘정 그러시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코끼리를 다루는 법이나 한번 친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마침내 상사의 간청에 따르기로 했다. 이때 성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상사가 왕에게 코끼리 다루는 법을 보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왕은 시종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곳에 이르렀다. 상사는 대장장이에게 철환鐵丸(잘게 만든 탄알) 일곱 개를 만들어 시뻘겑게 불에 달구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았다. 그 까닭은 코끼리가 이 철환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그때는 왕도 후회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상사가 왕에게 아뢰었다.

‘백옥처럼 흰 이 같은 코끼리는 오로지 전문성왕(이상적인 군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허물을 탓해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왕은 더욱 화를 내면서 상사를 꾸짖은 뒤 외면해 버렸다. 이에 상사는 시뻘겑게 달군 철환을 코끼리에게 먹으라고 내다 놓았다. 코끼리가 머뭇거리자 상사는 재촉했다.

‘너는 어째서 이 철환을 먹지 않느냐?’

코끼리는 슬픈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철환을 입에 물고 삼

켰다.

불에 탄 철환은 코끼리의 배속에 들어가 내장을 태우면서 뚫고 나왔다. 코끼리는 이내 죽어 넘어졌고, 땅에 떨어진 철환은 아직도 연기를 뿜으면서 타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 왕도 이 일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내 후회했다.

왕은 상사에게 물었다.

‘네가 길들인 코끼리는 것처럼 순종하는데, 그날 숲 속에서는 어째서 막지 못했느냐?’

‘저는 코끼리의 몸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요, 그 마음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도 다루고 마음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

‘부처님이라면 능히 몸도 다루고 마음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가 말하는 그 부처님이란 사

람은 어떤 카스트(신분계층)에서 나왔느냐?’

‘부처님은 두 카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지혜요, 둘째는 자비입니다. 그분은 여섯 가지 보살의 수행을 부지런히 닦아 공덕과 지혜를 온전히 갖추었으므로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룰 뿐 아니라, 중생들까지도 잘 다룹니다.’

왕은 상사에게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곧 궁중으로 돌아가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높은 다락에 올라가 사방을 향해 절한 뒤 모든 중생에게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향을 사르면서 원을 세웠다.

‘내 모든 공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돌려보내나이다. 내가 부처를 이룬 다음에는 내 마음을 다루고, 또 모든 중생을 다루겠습니다. 만일 한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에 들어가

한 겁을 지냄으로써 그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는 그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끝내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을 세우자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에서는 왕을 찬탄하는 노래가 은은히 메아리쳤다.

‘당신은 그 서원의 공덕으로 오래지 않아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가 된 후에는 우리들도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느니라.

또 이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궁금하리라. 그때 철환을 먹은 흰 코끼리는 바로 지금의 아난다요. 상사는 사리불이며, 대광명왕은 지금의 이 몸이니라. 나는 그때 코끼리가 잘 길들여져 순종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도의 마음菩提心을 내어 마침내 부처를 이루었느니라.”

〈현우경〉대광명왕시발도심연품

大光明王始發道心緣品

## 9월 결연 대상자 - 김석훈(가명)

### 천사의 미소를 지닌 아이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짓는 아들을 끌어안은 김석훈씨(가명)는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석훈씨는 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을 안고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김석훈씨의 아들, 지훈이의 행동은 또래 아이들과 매우 다릅니다. 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홀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장시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도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따라 할 뿐 자신의 생각을 담은 문장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전반적 발달장애(자폐증)를 갖고 있어 아빠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정상적인 생

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의 장애를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아빠의 눈물에도 발달장애를 가진 지훈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 아들, 미안해. 모두 아빠 잘못이야. (아빠의 눈물)

올해 50세의 김석훈씨는 2005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 대퇴골 골절, 좌측 다리 수술을 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갔고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지훈이를 출산한 해에 이혼을 하고 큰 딸과 지훈이를 데리고 차가로 내려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들이 보고 싶었지만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

로도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가로부터 아이들을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고 아내는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아이들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양육에 부담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본 지훈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전반적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

이들을 양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아빠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석훈씨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약 1,100,000원의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수술하면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면 생계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창 크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생계비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까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세탁소의 사과문



오래전 어느 마을에 있는 작은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세탁소 전부를 태웠고, 며칠이 지난 후 마을 벽보에는 '사과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세탁소에 불이 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옷을 맡기신 분들은 종류와 수량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 한 주민이 공고문 아래에 글을 적고 갔습니다. 당연히 옷 수량을 적어 놓은 글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아저씨! 저는 양복 한 벌인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민의 남긴 댓글에 마을 주민

들이 속속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누군가 금일봉을 전했고, 금일봉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도 세탁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벽보에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름 아닌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세탁소를 운영해 오면서 어렵게 일귀 온 삶이었는데, 화재로 인해 한순간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하는 현상. 나비효과라고 합니다.

나비효과처럼 혼자만의 작은 선행과 배려로 시작한 일이, 작게는 우리 가족 크게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큰 힘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 이 달의 명언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루쉰 -

\* 출처 : 따뜻한 하루

# 벽

글 • 이태준(소설가)

뉘 집에 가든지 좋은 벽면을 가진 방처럼 탐나는 것은 없다. 넓고 멀찍하고 광선이 간접으로 어리는, 물속처럼 고요한 벽면, 그런 벽면에 낚은 그림이나 한 폭 걸어 놓고 혼자 바라보고 앉았는 맛, 그런 벽면 아래에서 생각을 소화하며 어정거리는 맛, 더러는 좋은 친구와 함께 바라보며 화제 없는 이야기로 날 어둡는 줄 모르는 맛, 그리고 가끔 다른 그림으로 갈아 걸어 보는 맛, 좋은 벽은 얼마나 생활이,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일까!

어제 K군의 입원으로 S병원에 가 보았다. 새로 지은 병실, 이등실, 세 침대가 서로 좁지 않게 주르르 놓여 있고 앞에는 널따란 벽면

이 멀찍하니 떠 있었다. 간접 광선인데가 크림빛을 칠해 한없이 부드럽고 은은한 벽이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벽이라 했다. 그리고 아까운 벽이라 했다. 그렇게 훌륭한 벽면에는 파리 하나 머물러 있지 않았다.

다른 벽면도 그랬다. 한군데는 유리창이 하나 있을 뿐, 넓은 벽면들은 모두 여백인 채 사막처럼 비어 있었다. 병상에 누운 환자들은 그 사막 위에 피곤한 시선을 달리고 하다가는 머무를 곳이 없어 그만 눈을 감아 버리곤 했다.

나는 감방의 벽면이 저러러니 생각되었다. 그리고 더구나 화가인 K군을 위해서 그 사막의 벽면에다 만년필의 잉크라도 한 줄기 뿌려 놓

고 싶었다.

벽이 그림다.

멀찍하고 은은한 벽면에 장정 낚은 옛 그림이나 한 폭 걸어 놓고 그

아래 고요히 앉아 보고 싶다. 배광背光이 없는 생활일수록 벽이 그리운가 보다.

〈무서록〉, 박문서관, 1941년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이태준(1904-?)** • 소설가. 호는 상허(尙虛), 상허당주인(尙虛堂主人).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조치대학에서 수학했다. 이상, 정지용 등과 함께 구인회의 실질적 대변자였고 한국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고전문, 전통론을 형성한 중요한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지용, 이병기 등과 함께 1930년대 말에 창간된 순문예지 〈문장〉을 주재했으며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했고 이후 월북했다. 〈달밤〉〈가마귀〉〈복덕방〉〈패강녕〉〈해방 전후〉 등 많은 중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을 남겼고, 이 외에도 수필집 〈무서록〉, 문장론을 정리한 〈문장강화〉 등의 역저가 있다.

##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법정스님 글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초등학생 예술 창작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정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7.8.14(월)~9.14(토)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
- 접수 방법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 clean94@hanmail.net

### 행사 안내

- 일시 : 2017. 09. 24(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 고정된 것이 있을까요?

글 • 고희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엄마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엄마는 공감대화로 자녀와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 스마트폰 갖고 싶어요.’  
‘스마트폰이 갖고 싶구나?’

‘네...’

‘다른 아이들이 쓰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어?’

‘네...’

‘그랬구나... 그런데 네 형이 4학년 되어 스마트폰 사용했잖아요. 너도 그 때 사주면 어때?’

‘그럴 줄 알았어요. 엄마는 자기 맘대로만 해요...’

엄마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엄마 맘대로만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에 놀랐습니

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를 배려하며, 같이 성장하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되어 연속적인 대화 2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답 1. \_\_\_\_\_

답 2. \_\_\_\_\_

지난 대선 때 어르신 두 분이 나누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좌편향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가 좌편향이라...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야.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심하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심하게 오른쪽에 서서 보니 가운데 있는 내가 왼쪽으로 보이는 것일 거야..’

어디에 서서 상대를 보느냐로 판단은 달라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먼저 고려하고 상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만을 말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공감대화법입니다.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내 의견하고는 많이 달라서 놀라워. 나와 자네의 의견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군!’ 이라고 말하면 판단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그들을 넣고 싶어합니다. 그 틀은 부모와 교사가 여태 살아온 경험을 모아 최선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겠지요?

그 틀 안으로 빨리, 잘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안타까워하고,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과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만을 부모와 교사가 목표로 해야 할까요? 틀로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길도 있고, 틀로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길도 있고, 틀 자체를 깨버리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우선 자신이 만든 틀을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틀 자체를 넓히거나,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왜 형과 똑같이 4학년이 되면 스마트폰을 써야 하지요? 틀을 만들어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화를 하며 서로 의견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엄마가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일 당장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다음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말을 듣고, '엄마가 네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네. 너와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싶었고, 스마트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싶었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느바-부(상황-느낌-바람-부탁)를 말한 것입니다.

너의 상-느(상황-느낌)를 말해주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엄마하고 말하면서 엄청 답답했어?'

엄마가 한 너의 상-느(상황-느낌)의 말에 대화가 연결될 것을 상

상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형과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형이 한 대로만 해야 되요? 저는 저라고요, 형이 아니에요!' 흥분하여 마구 자기 말을 쏟아냅니다.

이 때 흔들리지 말고 공감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너를 형과 같아야 한다고 할 때마다 속상했구나?'

'네... 저는 저로 인정받고 싶어요. 물론 형이 좋고, 도움도 받고, 잘 놀지만 형은 형이고, 저는 저예요!'

'그래, 엄마가 형은 형으로, 너는 너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네...'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미안하네. 형이 한 대로 네가 하길 바랐거든. 엄마가 고정된 틀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

'이제 답답함과 속상함이 좀 가라앉았니?'

'네...'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네, 좋아요!'

이 공감 대화를 통해서 엄마와 아들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 뒤로 스마트폰에 대한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서로 멋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엄마가 공감해주면서 자력(自力)을 쌓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자력은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쌓아서 벽이 되고,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 대화는 자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차디차고 무표정한 집을 맑고 향기로운 집안으로 바꾸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글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라'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해와 사랑으로 열린 대화를 하는데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글이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였습니다.

\* 앱 설치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 화가 반 고흐의 서간문집 『반 고흐, 영혼의 편지』

글 • 윤부혁(작가)

소개하는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네덜란드, 1853- 1890)의 서간문 모음이다. 고흐는 불후의 명작으로 불리는 수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지독한 가난과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이 책은 고흐가 동생 테오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띄운 편지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고흐의 고통스러웠던 인생유전, 그리고 찬란했던 미술작품 속의 비밀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게 만든다.

화가 고흐의 인생 이야기는 지독한 가난, 고독, 예술에 대한 끝없는 집착, 발작, 요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고흐는 37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삶은 소설처럼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그

는 힘든 삶을 살면서도 강렬한 작품을 남겼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그의 작품을 좋아하고 있고 또 그의 삶을 기억한다. 그 이유는 그가 지독한 가난과 고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더 나은 작품을 위해 불안한 자신의 내면과 끝없이 싸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 작품을 세상에 남겼다.

고흐는 불멸의 화가이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가로 렘브란트 이후 가장 위대한 네덜란드 화가로 추앙받고 있기도 하다. 현대 회화의 인상주의, 야수파, 추상주의, 표현주의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친 그는 대표작으로 ‘감자 먹는 사람들(1885) ‘해바라기(1888) ‘밤의 카페(1888) ‘별이 빛나는 밤’(1889) 등이 있다. 1853년 3월 30일 출생한 그는 화가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인 서른이 가까운 188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890년 7월 자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십 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놀림으로 800점 이상의 유화와 700점 이상의 데생을 그렸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반 고흐의 이름과 예술세계는 화단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림도 거의 팔리지 않았다. 화가로서의 무명과 평생 지속한 가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는 삶과 광기 어린 생활을 오가던 고흐에게 동생 테오는 단순한 화상(畫商)이 아닌 인생의 후원자요 정신적인 지지자였으며 삶을

지탱하게 해준 상담자였다. 이 책에 수록된 편지는, 1872년부터 테오와 가족, 그리고 폴 고갱, 에밀 베르나르 같은 동료 화가와 친구들에게 보낸 것들로 화가 고흐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고흐의 천재성과 심오한 관찰력, 삶에 관한 책임감, 그리고 결코 해소될 수 없었던 정서적 불안과 고독을 느낄 수 있다.

흔히들 고흐를 ‘천재’나 ‘미술에의 순교자’로 보거나, 반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광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 서간문집을 읽으면 ‘인간’ 고흐, ‘화가’ 고흐의 모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책에 수록된 고흐가 직접 쓴 편지와 그림을 읽다 보면 그의 내면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의 삶과 예술에 대한 열정과 성찰을 느낄 수 있다.

“너 하나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전체 그림

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마  
음을 달래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먹여 살리느라 너는 늘 가난하게 지  
냈지. 돈은 꼭 갚겠다. 안 되면 내 영혼을  
주겠다.” - 1889년 1월

“내 변함없는 소원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색  
채와 구성에 의한 새로운 미술, 예술적 삶  
에 의한 새로운 미술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믿고 그림  
을 그린다면, 우리가 헛된 희망을 품지 않  
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 1889년 3월

고흐에게 동생 테오는 어떤 존  
재였을까? 여동생 율에게 보낸 편  
지에서 고흐는 다음과 같이 썼다.  
“테오가 없었다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친구 같은 테오가 있었기  
에 내 그림의 수준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 1887년 여  
름~가을

테오는 고흐에게 동생이자 친구  
이며 후원자였고 또 동반자였다.  
고흐의 고백처럼 테오가 없었다면  
고흐의 그림은 탄생하기란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한 테오에게, 고  
흐는 일기 쓰듯 편지를 썼다. 고흐  
의 편지에는 그의 심정과 처지가  
매우 솔직하게 씌어 있다. “본의 아  
니게 쓸모없는 사람”, “재장 속에  
갇힌 새”, “나는 개다”라는 표현이  
편지에 자주 등장한다.

그의 복잡한 내면과 고통스러운  
생활이 가감 없이 담긴 여러 편지  
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가난과 힘든  
싸움, 그리고 색으로 상징되는 그  
림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집착이  
그것인데, 고흐의 수많은 편지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고흐는 사촌 여동생인 케  
이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의 심정, 비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시엔이라는 여자와 동거를 하게 됨

으로써 동료는 물론 가족과 겪게  
된 갈등, 아버지와의 격심한 불화,  
고갱과 다툼 등을 솔직하게 적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 고  
흐가 삶과 예술에 얼마나 진지하  
고 치열하게 접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감옥(무지, 편견 등)을 없애는 게 뭔지  
아는가? 깊고 참된 사랑이다. 친구가 되  
고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  
의 가치이며, 그 미술적 힘이 감옥 문을 열  
어준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서 인생  
도 다시 태어난다.” - 1880년 7월

반 고흐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넘었다. 그리고 38살의 나  
이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10년간 고흐가 남긴 작  
품과 발자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1,900여 점의 소묘와 회화  
작품에 새겨진 진지한 붓질과 함  
께, 조각조각 삶의 조각을 꿰매듯

맞춰간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처절하다.  
고흐가 생애에서 보여준 괴팍함은  
편견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역으  
로 그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맑은  
지도 깨닫게 한다. 그의 편지를 읽  
다가 선입관에 빠져있던 자신을 발  
견하며 당황하게 되고, 고흐의 그  
림 하나하나가 어떤 철학과 영혼,  
자부심에 가득한 결정체임도 발견  
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신교도 가  
정에서 태어나서 그 환경을 의지  
하며 살았던 그가 종교적 실패를  
닫고 일어서면서 모든 확신과 신념  
을 예술 활동에 몰두하며 극복하  
는 과정은 오늘의 우리에게 용기  
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유작으  
로 불리는, 죽기 이틀 전까지 붓질  
했다는 ‘까마귀가 나는 보리밭’은  
남프로방스의 뜨거운 태양 너머에  
서 열심히 살려 했던 외로운 한 인  
간의 외침을 듣는 듯하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9월 24일(넷째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 제1회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의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 시상식

(사)맑고 향기롭게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길상사의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에 총 211명의 참여와 총 585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사진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양현모 프로 사진작가, 함명준 출판 기획자,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 (사)맑고 향기롭게 흥정근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어 사진의 규정, 규격 준수 여부, 활용도, 적합성, 작품성, 참신성을 종합 판단하여 입선작과 본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작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http://www.clean94.or.kr>) 포토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선작의 시상순위는 24일 시상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상작은 전시와 공익목적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길상사를 중심으로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상사의 신도님과 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봉사자의 맑고 향기로운 모습을 사진으로 발굴하였고, 길상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풍경과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 나무 등으로 이뤄진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9월 24일(일) 시상식에는 본선 선정작에 대한 양현모 프로 사진작가님의 작품 평가와 사진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길상사 경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문예 창작능력 향상을 위해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 여러분의 참여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 1. 일정&예정지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월 9일(토): 전남 함평 모악산 불갑사, 모평마을(파평 윤씨 집성촌)
- 10월 7일(토): 경북 봉화 석천정사, 석천계곡, 닭실마을(안동 권씨 집성촌)

#### 2.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우천 예상시 우산 준비)

#### 3. 참가비 안내

- 일반 참가자(비회원) : 45,000원
- 할인 혜택(맑고 향기롭게 후원회원& 정기 봉사자, 길상사 신행단체회원, 길상사 신도증 발급자) : 35,000원
- 점심식사 포함(시골 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식사를 탐방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4.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출구 :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경희대 해비타트 동아리 <미라클팀>-집 고치기 봉사활동



8월 5일, 경희대학교 해비타트 동아리 미라클이 「맑고 향기롭게」의 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당선된 후 처음으로 집 고치기 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 고치기 봉사에서는 벽지도배와 장판교체를 주로 하고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집수리를 도와드립니다.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봉사이긴 하지만 '미라클팀'은 14년도 창립 이후 꾸준히 봉사를 다니고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매번 벽지와 장판을 사기에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맑고 향기롭게」에서 지원을 받아 올해에도 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답사를 통해 불편한 점을 조사하고, 방의 크기와 치수들을 파악한 후 봉사 당



일에 가구 옮기기, 벽지 뜯기, 벽지 재단, 도배물 만들기 및 바르기, 천장 벽지 붙이기 등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곰팡이 핀 벽지와 들뜬 벽지를 모두 뜯어내서 새로 붙였습니다. 오후에는 벽지를 붙이고 장판을 새로 깔 후, 청소를 한 방에 가구를 원위치해서 어르신이 전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맏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이화여대, 연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 (나누미팀) -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 행사



7월 28일, 대학생교육봉사동아리 나누미의 두 번째 여름 행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진행되었던 여름 캠프를 가기 위해 준비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놀이공원과 아쿠아리움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 중인 롯데월드로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행사 당

일, 공부방에서 모인 나누미 선생님들과 공부방 아이들은 미리 짜놓은 조의 일원이 되어, 함께 롯데월드로 출발하였습니다. 놀이기구를 잘 타지 못하는 학생들은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워하고, 놀이기구를 즐겨 타는 학생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기구를 기다리며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놀기도 하였고, 오후엔 함께 모여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아쿠아리움으로 이동하여 관람하였습니다. 비가 와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과 동아리원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냈고, 아무런 사고 없이 계획한 일정대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던 동아리원들과 아이들은 이날 하루 동안만큼은 같이 놀이기구를 타고 아쿠아리움도 관람하며 친구가 되어 좋은 추억을 쌓았고,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무뎠고 습한 날씨임에도 모두가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큰 도움을 주신 맏고 향기롭게에 감사드리며, 다양하고 알찬 맏고 향기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나누미'가 되겠습니다.

### 문화, 예술 사업 운영을 위한 (재)성북문화재단과 MOU 체결

(사)맏고 향기롭게과 (재)성북문화재단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북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협력 뿐 아니라 관내 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경험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콘텐츠를 보급하고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재)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내에 위치한 성북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성북동 예술마를 만들기, 아리랑 시네아트, 미아리 예술극장 운영과 지역사회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북구를 문화, 역사, 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맏고 향기롭게는 지역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사업, 독서문화와 문인 관련 문화사업, 상호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협력하여 더욱더 맏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맏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매월 둘째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8시 30분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파주 요양시설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서 봉사자들과 그동안 있었던 일, 재미난 입담으

로 1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도착합니다. 그렇게 도착하면 오전에는 어르신들 식사에 쓰이는 식자재를 다듬는 활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시간에는 시설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인사하며 손을 꼭 잡아드리며 잘 계셨냐고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들과 박수치며 흥겹게 옛 동요와 트로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럽고 어색하다가도 어느 순간 같이 박수치며 따라 부르게 됩니다. 비록 한 달에 한번이지만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기다려지는 자원활동입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2,000여명의 어르신에게 점심 배식활동과 설거지, 정리정돈 등을 합니다. 맏고 향기롭게 자원봉사는 매주 월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 맏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맏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배



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1,0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메뉴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밑반찬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여름철이 아니어도 영양 좋고 맛 좋은 우리 집만의 메뉴가 있으면 살짝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활동**



전화 말벗 자원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

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은 매월 넷째 화요일에 길상사 다라나다원에서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모임을 갖는 이유는 어르신들께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부와 어르신들의 근황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전화말벗 자원활동에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활동**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 입고되지 않는 소품들은 비정기 녹색나눔장터와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 (짝수 달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짝수 달(2, 4, 6, 8, 10, 12월) 첫째주에서 넷째주 수요일에 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 순서대로 강좌가 진행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 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

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사진공모전 시상식 : 24일(넷째 일요일)/오전11시/설법전
-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 24일(넷째 일요일)/오후 1시/길상사 경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4일)/맑고 향기롭게 반찬나눔



-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  
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  
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  
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  
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  
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  
(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  
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  
요일(26일)/오후 1시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  
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6, 23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세  
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  
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 일반사업 후원계좌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3-129                신한은행 100-013-787953
-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 장학금 후원계좌
- 농협 029-01-199412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결식이웃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  
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  
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월 둘째, 넷째 금  
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  
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  
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  
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  
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  
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  
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  
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  
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  
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  
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  
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  
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사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로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추석합동차례

-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추석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17년10월4일 r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위패번호 1~400) 설법전(위패번호 401~)
- 동참금 : 5만원
- ※ 수시로 접수합니다.

###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7회차 기도가 10월 2일(월)에 입재되니 수시로 접수 바랍니다.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9월 2일(토) 오후 6~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는 항상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 백중막제 및 하안거 해제

- 일시 : 9월 5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극락전

### 추계관음기도 입재

- 일시 : 9월 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 일시 : 9월 8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9월 9일(토) 오후 8시 00분 ~9월 10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 관음재일

- 일시 : 9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9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수능기도자 성지순례 기도

- 일시 : 9월 22일(금)~23(토) 1박 2일
- 장소 : 여수 향일암

- 동참금 : 5만원
- ※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 지장전 천일기도 입재

- 일시 : 2017년 8월 9일(수)  
~2020년 5월 4일(월)
- 장소 : 지장전

### 금강경 기도 6회차 회향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9월 2일(토)	저녁 6시	극락전
백중 막재 및 하안거 해제	9월 5일(화)	오전 9시 20분	극락전
보름기도	9월 5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입재	9월 6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8일(금)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9월 9일(토)	저녁 8시	극락전
관음재일	9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9월 20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입시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 2017년 길상사 불교대학 하반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2017년 하반기 불교입문/불교대학/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해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반야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 불자님들을 바른 신행과 수행의 길로 안내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불교입문 35기 개강

개 강 : 9월 6일 수요일 (3개월 과정)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주·야)  
-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 야간반 : 오후 7시 30분 ~ 9시 40분  
지원자격 : 초발심자,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 누구나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포함)  
지원자격 : 교무스님

### 불교대학 8기 2학기 개강

개 강 : 9월 7일 목요일 (총 18강)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주·야)  
- 주간반 : 오후 1시 30분 ~ 3시 40분  
- 야간반 : 오후 7시 30분 ~ 9시 40분  
지원자격 : 기본교육수료자, 신도증 소지자  
수 강 료 : 학기등록 20만원(1년 40만원)  
지원자격 : 불교수행론(일종스님), 불교문화론(오인스님)

### 가을 경전반 개강

개 강 : 9월 8일 금요일 (총 14강)  
과 목 : 법구경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지원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별도)  
지원자격 : 도업스님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길상사 홈페이지(배움터)강좌/불교입문/불교대학/경전반 신청하기 작성 후 계좌입금

**방문 접수** : 종무소에 "수강신청서" 제출 후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수강료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5-929544 / 예금주 : 길상사 불교대학

입금하신 후 길상사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길상사 종무소 ☎ 02-3672-5945



# 제1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 2017. 9. 24(일) -

##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2017. 8.14(월) ~ 9.16(토)
-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생
- 접수 인원 : 선착순 150명
- 접수 방법 :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
- 접수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행사 안내

- 일시 : 2017. 09. 24(일) 13:00~18:00
- 장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 내
- 참가 부분 : 운문·산문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받침대, 돗자리, 물

## 발표 및 시상식

- 발표일 : 10월 18일(수) 예정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시상식 : 10월 29일(일) 예정

## 유의사항

- 출품하신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에 한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책자로 제작, 배포할 수 있음

## 주최 말고 향기롭게

## 협찬 길상사

## 협력 성북문화재단

## 시상 내역

구분	저학년		고학년		상금
	운문	산문	운문	산문	
장원(무소유상)	각 1명 (총 4명)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차상(맑음상)	각 2명 (총 8명)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차하(향기상)	각 3명 (총 12명)				상장 및 상품권 10만원
장려상	각 5명 (총 20명)				상장 및 상품권 5만원
총계			총 44명		

\*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상자 전원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무소유' 동화책을 드립니다.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http://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